

제 33 장 총수요와 총공급



경기변동

- 경제활동 수준은 매년 변한다.
- (recession)
  -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
- (depression)
  - 심한 경기침체



경기변동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

1.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.
2. 대부분의 거시경제 수량변수들은 함께 움직인다.
3.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은 증가한다.

그림 33.1: 미국 경제의 단기 경기변동 추이 (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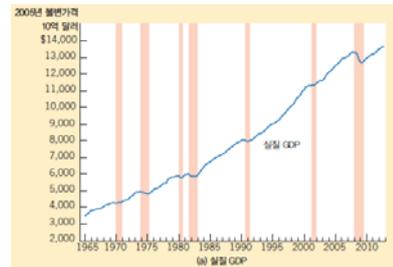


그림 33.1: 미국 경제의 단기 경기변동 추이 (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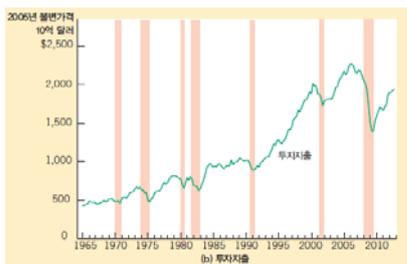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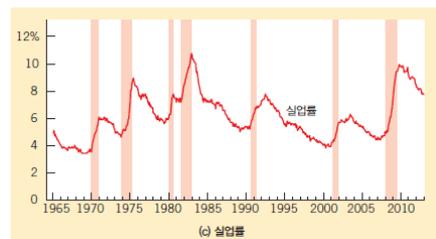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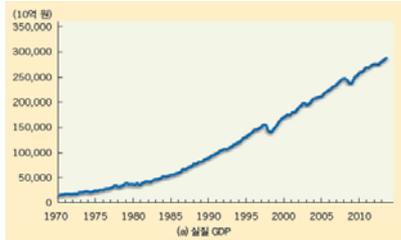


그림 33.1: 미국 경제의 단기 경기변동 추이 (c)



[한국] 그림 33.1: 경기변동 : 실질 GDP, 총투자, 실업률 : 1970~2013 (a)



[한국] 그림 33.1: 경기변동 : 실질 GDP, 총투자, 실업률 : 1970~2013 (b)



[한국] 그림 33.1: 경기변동 : 실질 GDP, 총투자, 실업률 : 1970~2013 (c)



단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

- 경제학의 가정들
  - 고전학파의 이분법
  - 화폐의 중립성
- 고전학파의 이론은 경제의 장기 행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단기 경기변동을 설명하지는 못한다.
  - 단기적으로는 실질변수와 명목변수가 밀접하게 연결
  - 단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 가정이 부적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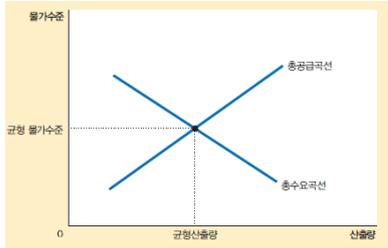
총수요·총공급모형

- 단기 경기변동 모형의 두 가지 변수
  - 실질 GDP
  - CPI 또는 GDP 디플레이터
- 총수요·총공급모형(model of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)
  -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모형

총수요와 총공급

- 총수요곡선(aggregate demand curve)
  -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, 기업,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
- 총공급곡선(aggregate supply curve)
  -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·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

그림 33.2: 총수요와 총공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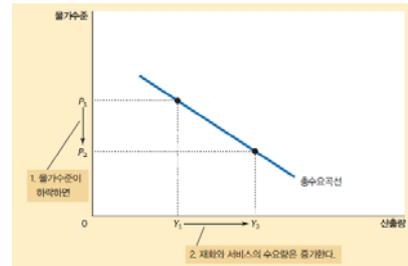
총수요곡선

- GDP 의 네 가지 구성 요소
  - $Y = C + I + G + NX$
-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
  - 물가수준과 소비 : 자산효과 (C)
  - 물가수준과 투자 : 이자율효과 (I)
  - 물가수준과 순수출 : 환율효과 (NX)
- 가정: 정부지출은 정책에 의해 고정 (G)

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

-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재화와 서비스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유
  1. 소비자들의 부가 증가하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.
  2.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.
  3. 환율이 절하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.

그림 33.3: 총수요곡선



총수요곡선이 이동하는 이유

- 물가수준 외에도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으며, 이런 요인들이 변하면 총수요곡선은 이동한다.
  1. 소비지출의 변동
  2. 투자지출의 변동
  3. 정부구입의 변동
  4. 순수출의 변동

표 33.1: 총수요곡선 : 요약

**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**

1. 자산효과 :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고,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증가한다.
2. 이자율 효과 :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, 이에 따라 투자지출이 증가한다.
3. 환율효과 :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환율이 절하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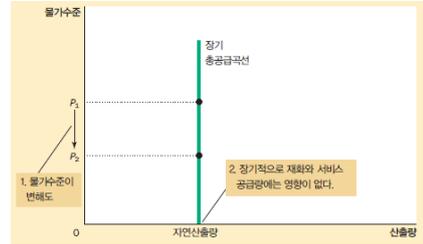
**총수요곡선이 이동하는 이유**

1. 소비지출의 변동 : 세금 인하, 주식시장의 호황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. 세금 인상, 주식시장의 침체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.
2. 투자지출의 변동 :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,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기업의 투자지출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.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,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기업의 투자지출을 감소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.
3. 정부구입의 변동 : 국방비 증가,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. 국방비 삭감, 고속도로 건설 감축 등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의 감소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.
4. 순수출의 변동 : 해외 경기 호황,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. 해외 경기 침체,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.

총공급곡선

- 장기 총공급곡선: 수직
  -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그 경제가 보유한 노동과 자본의 양, 그리고 이를 재화와 서비스로 변환하는 생산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.
  - 물가수준은 장기 실질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- 단기 총공급곡선: 우상향

그림 33.4: 장기 총공급곡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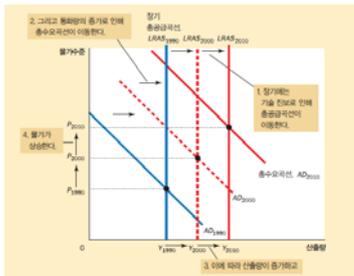
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

- 자연산출량(natural rate of output)
  - 정상실업률, 즉 자연실업률과 같은 장기의 재화와 서비스 산출량
- 자연산출량이 변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한다.
  1. 노동부문의 변동
  2. 자본부문의 변동
  3. 자연자원의 변동
  4. 기술지식의 변동

장기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

-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와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
  - 기술 진보로 인해 장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
  - 통화량의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
  - 산출량 증가
  - 물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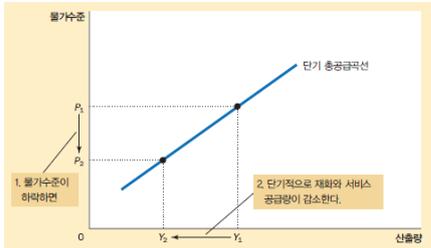
그림 33.5: 총수요총공급곡선을 통해 본 장기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



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

-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.
  -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와 공급량 증가
  -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와 공급량 감소
-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
  1. 임금경직성 이론
  2. 가격경직성 이론
  3. 착각이론

그림 33.6: 단기 총공급곡선



세 가지 이론의 시사점

-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
  - 실제 물가가 사람들이 예상한 수준과 다르면 단기 산출량이 자연산출량과 달라진다.
  - 산출물의 공급량 = 자연산출량 + a(실제 물가수준 - 예상 물가수준)

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

- 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
  -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
    - 노동부문의 변동
    - 자본부문의 변동
    - 자연자원의 변동
    - 기술지식의 변동
  - 물가수준에 관한 사람들의 예상
    -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왼쪽으로 이동

표 33.2: 단기 총공급곡선 :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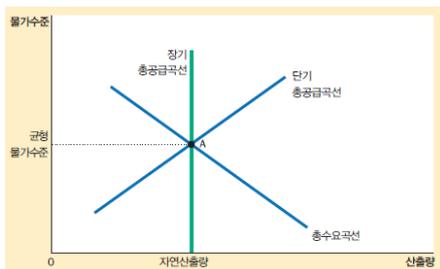
**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**

1. 임금경직성 이론: 물가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면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감축하고,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 감소한다.
2. 가격경직성 이론: 물가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면 일부 기업의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아 판매가 감소하고, 이에 따라 생산을 줄인다.
3. 착각 이론: 물가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면 일부 공급자들은 자신의 상대가격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여 생산을 줄인다.

**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**

1. 노동의 변동: 자연사업부의 하락 등으로 노동인구가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자연사업부의 상승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.
2. 자본의 변동: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이 감소하면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.
3. 자연자원의 변동: 가용 자연자원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가용 자연자원이 감소하면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.
4. 기술지식의 변동: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정부의 규제 등으로 가용기술에 제약이 가해지면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.
5.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: 예상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.

그림 33.7: 장기 균형



총수요곡선 이동의 효과

- 총수요곡선 이동의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
  -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면 단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 변한다.
  - 장기적으로 총수요곡선의 이동은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만, 산출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  - 정책 당국은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.

표 33.3: 거시경제의 변동을 분석하는 4단계

- 어떤 시간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 중 어느 쪽(혹은 양쪽 다)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한다.
- 해당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판단한다.
- 총수요·총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단기 산출량과 물가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한다.
- 총수요·총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경제가 새로운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분석한다.

그림 33.8: 총수요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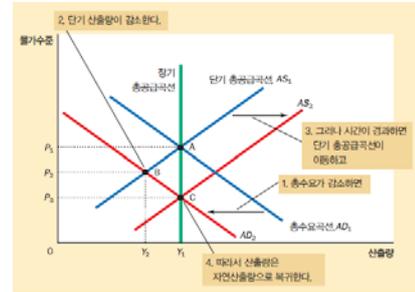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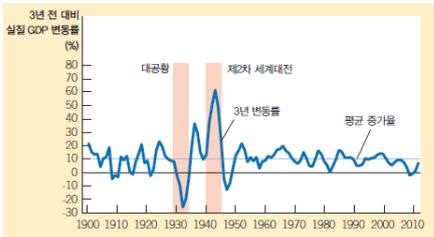


그림 33.9: 1900년 이래 미국의 실질 GDP



총공급곡선 이동의 효과

- 총공급곡선 이동의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
  - 총공급곡선의 이동은 경기침체(산출량의 감소)와 인플레이션(물가의 상승)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.
  -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당국은 산출량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,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악화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.

그림 33.10: 총공급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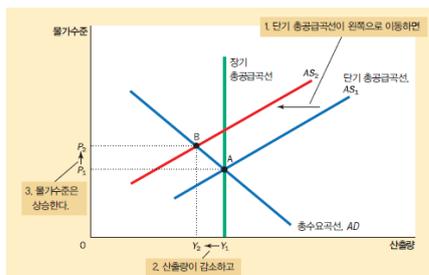


그림 33.11: 총공급의 감소에 대응한 총수요 확대 정책

